



2020년 장흥정착사례 수기

장흥에 살아볼게
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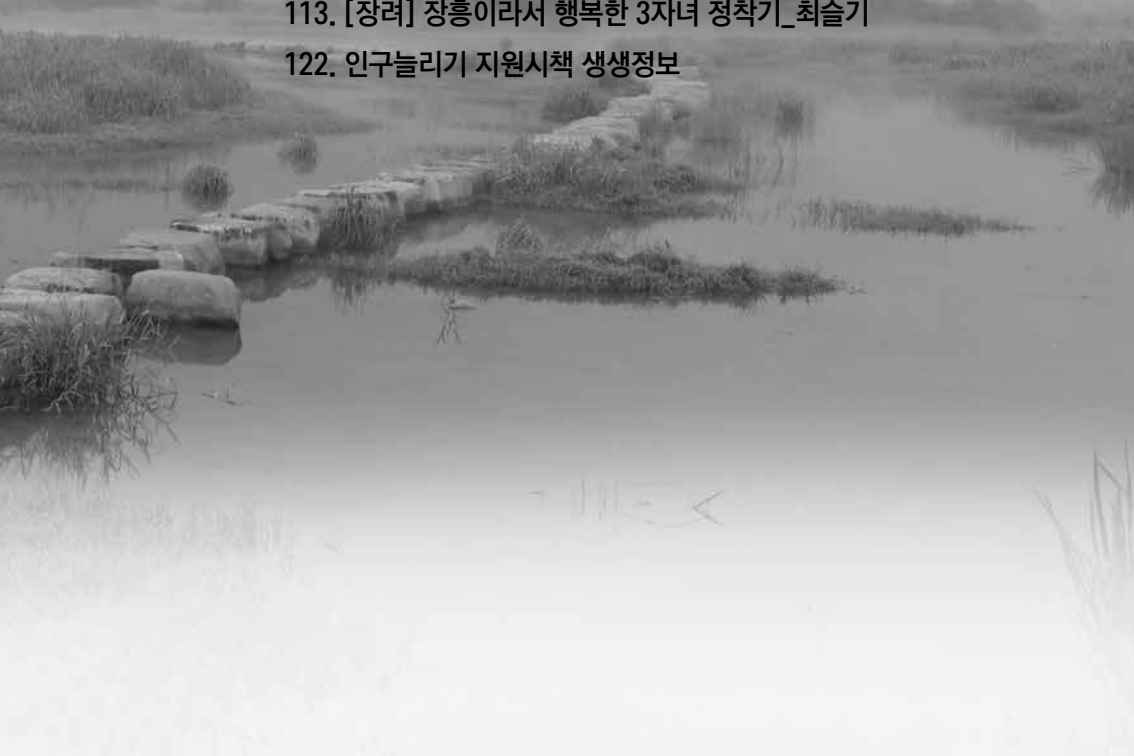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Contents

- 004. 발간사
- 006. 축사
- 008. 심사평
- 010. 대상 수상소감
- 011. [대상] 오십살 젊은 새댁_박미순
- 027. [최우수] 도시남을 품은 장흥_송진우
- 039. [우수]지상낙원 장흥_홍석우
- 057. [우수]나 인자 장흥서 쭈~욱 살아볼라요_김장규
- 077. [장려]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희망찬 장흥!_김경현
- 087. [장려] 살기 좋은 장흥!_양보람
- 099. [장려]Being in This Place(장흥에서 사세요!)_서병학
- 113. [장려] 장흥이라서 행복한 3자녀 정착기_최슬기
- 122.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생생정보



발간사

도시의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누구나 한번쯤 자연을 벗 삼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골살이를 꿈꿉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사회적 이민이라 불릴 만큼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정착 사례 수기집은 이같이 복잡한 과정을 이겨내고 농촌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장흥정착사례 수기공모집은 귀농·귀촌 준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긴 과정을 담았습니다. 농촌에서 삶을 결심한 배경과 고민, 그리고 장흥에 귀촌하여 살아온 실제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장흥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이후 장흥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수기를 공모하고, 당선작을 모아 수기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수기공모집이 농촌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농촌에서의 삶의 모습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바른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수기공모집을 통해 장흥을 알고 싶고, 장흥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작 하나하나에는 맑은 물 푸른 숲의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잘 표현돼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공모집이 장흥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향우와 도시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 장흥 정착사례 수기 「장흥에 살아본게 어짜요?」 공모전에 참여하여 우수작을 남긴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공정히 심사에 임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결혼장려금지원, 전입자 농산물지원, 생애 주기별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흥에서 인생 제 2막을 계획하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이 행복한 장흥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수 정종순

축사

귀농·귀어·귀촌으로 장흥에서 살아온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2020년 장흥 정착사례 『장흥에서 살아본게 어짜요?』 수기로 시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공모에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부딪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농어촌을 찾아와 제2의 삶을 보내고 계시는 귀농·귀어·귀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정남진 장흥은 우리나라 광화문을 기점으로 지리적으로 정남쪽에 위치해 육지와 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살기 좋고 풍요로운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 많은 문학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문학이 살아 숨쉬는 곳, 역사속에 많은 의병 활동을 했던 충과 효가 살아 있는 의로운 곳, 문림의향의 고장입니다.

그동안 문림의향의 고장에서 가족의 안정된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살아오신 잔잔한 삶의 이야기는 장흥에 귀농·귀촌·귀어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에게 장흥 정착의길라잡이로 활용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장흥에 살아본게 어짜요? 장흥군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며, 서로 공감하면서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0년 장흥 정착사례 수기 『장흥에 살아본게 어짜요?』 공모에 시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의회 의장 유 상 호

수기 공모 심사평

김석중(소설가. 장흥별곡문학동인회장)

귀향歸鄉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 진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는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의 사람들과 서정과 경관이 결코 잊혀 질 수 없는 따뜻하고 소중한 이야기로 남아 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삶의 근간이 어떤 형편이든지 때때로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그 행간은 그리움과 아름다움이 사무치게 교차하기도 한다. 1960-80년대의 시대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특히나 '고향'에 천착 하였고 그들의 소망은 언젠가는 '귀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들의 귀향의 소망은 이루어 질 수 없는 '바람'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가슴 속에 고향을 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위안을 받고 치유의 징후로 동행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문명과 문화의 시대가 도래 하고 '귀향'의 이미지는 예전 같은 감성을 동반 하지 않는 것 같다. 대신에 도시 집중의 생활 공간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귀농歸農 귀촌歸村 귀어歸漁의 패턴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의 정책으로 귀농歸農 귀촌歸村 귀어歸漁를 지원하고 유치하고 있어서 많은 사례들을 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장흥만 하더라도 공동화 되어가는 마을에 이거 이사 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리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다. 그 유형은 제 각각이지만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장흥의 어느 마을에 찾아든 이들의 행보가 여간 궁금 하고 더불어 그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손속을 거들어 주고 싶은 것은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한 군민의 심정을 대변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번 제1회 ‘장흥 정착 사례 수기’를 공모하는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7월 15일 장흥군청 담당자의 의뢰를 받아 수기 응모 원고를 심사 하였다.

그간 다양한 문예작품 공모와 현장 백일장 심사를 하였지만 ‘장흥정착 수기’ 응모 작품을 심사 한다는 사실은 사뭇 설레이고 기대가 되었다. 연고가 있던 없든 한 가족이 장흥에 정착 하는 그 간단치 않았을 삶의 행간을 수기로 공유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설레이는 것이었다.

다섯 명의 심사위원이 꼼꼼하게 읽고 일차의 순위를 매기고 이어서 심사위원 전원이 윤독하여 기재한 채점표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였다. 수기의 내용은 편마다 진솔하고 혹은 감동적이었다. 그런 한편으로는 기대만큼이나 현장감 있는 이야기 절실하고 공감이가는 정착의 동기가 부재한 것이 아쉬웠다. 특히 장흥의 환경과 사람과 문화의 향맥을 예찬 하는 수기가 많았는데 긍정적인 내용도 중요 하지만 장흥의 개선해야 할 속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수기가 문집으로 간행되어 널리 읽혀 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감안 하면 이후 장흥으로 귀농 귀촌 귀어 하는 분들에게 지침과 참고가 되는 내용들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더불어 수기 공모라는 형식을 의식 하였다면 보다 문학적인 표현과 서술의 생동감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회차인 ‘장흥정착 사례 수기’ 공모에서 선정된 입상 작품들이 향 후 장흥에 정착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손 잡아 주는 글’로 활용 된다면 다행일 것 같다.

◆ 대상 수상소감

숲에서 아이들과 열심히 뛰어 다니며 체험활동을 마친 후 맘에 흠뻑 젖은채 사무실에 들어와 폰을 켜다. “딩동” 문자가 하나 와 있다.

‘축하합니다. 공모전에 당선 되셨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수기 당선자 명단에 대상 박미순이라고 적혀있다. 뜻밖의 결과에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장흥으로 내려와서 지내온 몇 년의 생활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듯 싶어 담담히 우리 부부의 경험을 짧은 글로 옮겼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니 감사함과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모르겠다.

처음 귀촌했을 때 도움을 주신 여러 주위 분들이 새삼 고맙다. 잦은 모임에 시끄러울 수 있는데 걱정말고 사람 찾아오면 모임 잘 하라고 다독여 주시던 동네 어르신들, 답답하고 외로울 때마다 속마음을 열고 다독여주던 고향 친구들, 재주는 없는데 열정하나만 가지고 참여했던 여러 동아리에서 이쁘게 돌봐준 언니들, 수 없이 많은 분들한테 받은 사랑이 낯선 땅에서 더 빨리 정착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다. 그리고 현실로 옮겼을 때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꿈꾸며 기회를 엿보고 있겠지만 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절망도 하고 기쁨도 맞본다.

우리 부부는 배려하고 함께하려 노력하면서 이곳 장흥에 스며들고 있다. 그 노력속에 따뜻함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꿈을 꾸며 산다.

- 박미순

대상

오십살 젊은 새댁

- 박미순(장흥읍)

◇ 장흥에 온 날: 2016년 3월 14

|||||

마을에서는 젊은 새댁으로,
숲에서는 아이들에게 다람쥐 선생님이로,
4개의 모임에서는 총무님으로 불리는

하루 24시간이 짧은 정도로 바쁘게,
그리고 재미나게 시골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젊은 새댁의 장흥 정착 이야기

▽ 억불산에서 바라본 장흥읍 전경





“여보! 오늘 나 사표냈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웃는 얼굴로 크게 소리친다.

예전에 몇 번인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던 남편이 이번엔 아주 신이 났다.

옛날부터 회사 관두고 시골로 내려가 살자고 했지만, 막상 그 일이 코앞에 닥치니 덜컥 겁이 났다.

한창 일할 나이인 사십대 후반인데 벌써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 모두 걱정스런 눈길이다.

“시골 가서 뭐 해먹고 살건데? 어디로 가는데? 거기 연고는 있고?”

다들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이다.

“그냥 조그만 집하나 짓고 텃밭이나 일구면서 살죠 뭐! 아직 젊은데 우리 할 일 하나 없겠어요?”

남편의 답에 어르신들은 철딱서니 없다고 혀를 차신다.

서울에서 30년을 살았으니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시골생활이 낯설게 느껴질 때 남편이 느닷없이 “우리 나중에 시골 가서 살까?” 했다.

처음엔 농담 이겠거니 하고 곧바로 “그럼시다!” 고민없이 답했던 그 말이 이젠 현실이 되었다.

귀촌하기로 결심한 후 우선 귀촌지 물색에 나섰다.

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며 우리 부부 둘다 추위를 많이 타니 따뜻한 곳으로 정하자고 의견을 좁혔다. 거제, 통영에서부터 목포까지 바다를 끼고 있는 남도쪽으로 가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강진과 장흥으로 좁히고 약 5년동안 시간날 때 마다 내려와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그 지역 음식도 먹어가며 신나게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오래전부터 귀촌을 결심한 남편은 장흥으로 먼저 귀촌해 사시는 블로거들과 일친을 맺고 계속 연락을 하며 정보를 얻고 있었는데 일단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장장 5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한 장흥. 전국에 안가본 곳이 드물 정도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왜 장흥은 몰랐을까. 장흥읍에서 다시 40여분을 달려 블로거가 살고 있는 어촌마을에 도착했다. 모내기철이 한창 일 때였는데 동네 공동 우물에서 할머니들께서 모여 앉아 모내기 후 흙에 묻은 옷을 빨고 계셨다. 왜 세탁기로 빨지 않느냐고 물었고, 흙이 많이 묻어 초벌 빨아 세탁기에 돌리신다고 하셨다. 한참을 할머니들과 이런 저런 시골살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난 도저히 여기 내려와서 살 자신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4계절을 다 체험 해보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시골생활의 꿈을 접겠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장흥 나들이가 해가 바뀔 때마다 느껴지는 시간이 5시간이 4시간이 되고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 옴을 느꼈다. 계절이 바뀌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세달에 한번씩은 내려왔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산. 그리고 강을 한꺼번에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바로 정남진 장흥이다. 장흥은 언제 오더라도 포근하고 정겹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장흥은 한마디로 풍요와 안식의 땅 이었다.

처음엔 무작정 동네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묻자 반감을 가지고 잘 대답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2년, 3년 계속해서 내려와 찾아가니 조금씩 마음을 열고 조언을 해주시기 시작했다. 어느 곳에서 소를 많이 키우고, 지역민들 성향은 어떨고, 땅이나 집값은 어디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시골생활을 준비하는 젊은 예비 귀촌자에게 너무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말씀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수확한 제철 과일이며 채소들도 트렁크에 가득 실어 주시며 다시 꼭 오라고 손잡아 주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이제 장흥이 낯설지 않은 연고지로 바뀌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던 장흥의 풍경이 이제 내가 살아갈 곳이라 생각하니 더욱 친근하게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다. 할미꽃이 지고 나면 빼비가 새어 하얀 꽃가루가 온통 동산위에 흩날리고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한재공원을 좋아하고, 노란 유채밭과 소금가루가 뿌려져있는 듯한 메밀이 익을 무렵 메밀묵과 막걸리 한잔으로 한주의 피로를 달래주는 선학동, 장흥의 랜드마크인 편백향 가득한 우드랜드, 글램핑을 할 수 있는 심천공원, 정남진 전망대, 5월이면 철쭉들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제암산, 가을엔 억새가 춤을 추는 천관산의 비경, 천년의 고찰 보림사 가는 길의 애기단풍이 우릴 반겼고, 초무침을 맛있게 먹었던 수문해수욕장까지 조그만 시골에 뭐가 이리 많나 싶게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장흥을 소개할 때 무엇 한가지를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가득하고 바다와 산이 드넓은 평야와 함께 있는 곳 장흥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천혜의 힐링 청정지역이라고 말하고 싶다.

처음 내려와서는 관산에 집을 지어 텃밭을 일구는 전원생활을 꿈꾸었다.

집짓기에 적당한 밭을 구입하고 관산읍에 월세를 얻어서 드디어

소꿉놀이같은 장흥에서의 시골살이를 시작했다.

남편은 어렵지 않게 직장을 잡았다. 도시에서의 욕심을 내려놓고 보수가 작아도 그저 일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구하니 금방 일자리가 나왔다. 장흥에서 남자 50살은 젊은이에 속한다.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려가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남편의 생각이 정확히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관산에서 살아본 3개월 동안의 시골생활이 나를 전원생활의 꿈에서 확 깨어나게 해주었다. 오후 5시면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저녁식사 후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가로등이 없어 어두컴컴해서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도시의 화려한 밤문화에 길들여진 나를 무척 힘들게 했다.

결국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장흥읍으로 이사를 왔다.

장흥을 방문할 때마다 토요일시장을 들렀었고 그때마다 탐진강변의 아름다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정감이 있는 장흥읍에 정착하는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우리집 이웃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계시는 터줏대감들이었고 젊은 부부가 이사왔다며 좋아하셨다. 나이 50에

젊은 새댁이라는 소리를 듣고, 한달에 한번 반상회겸 주변 청소를 하는 날이면 내 손 다친다며 당신들이 다 일하시고 난 그냥 서 있으라고 하신다.

(우리 부부는 대청소날을 올력이라 표현한다.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셔서 한달에 한번 올력을 하는데 주말아침 6시에 집합을 시킨다.)

난 단지 그냥 밝게 웃고 인사드리며, 비오는 날이면 부침개를 부쳐서 가져다 드렸을 뿐인데 어느날 부터인지 우리집 문고리에 검정 봉투가 걸려있다. 이웃 주민들이 텃밭을 일구며 가꾼 야채들을 가져다 주신거다. 행여나 아침 일찍 잠 깨울까봐 조심스레 문고리에 걸어두시고 가는 배려심이 느껴진다. 이렇게 나도 이 마을에 조금씩 스며들어 가고 있구나 싶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도시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다툼이 있고 결국 이사까지 가는 일이 허다한데 반해 시골인심은 그저 웃기만 한다. 막내 딸 시골생활이 궁금한 우리 엄마, 친구 부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친구들, 도시에서 알고 지냈던 지인들의 끊임없는 관심

과 염려로 여름 휴가철이나 주말이면 찾는 사람들로 우리집은 항상 북적인다. 주위분들에게 미안한 맘으로 “죄송해요. 저희집이 너무 시끄럽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와서요”라고 하면 “에고 무슨소리며, 아무소리도 안들리던데. 그리고 집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 것이여”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신다. (참고로 우리 건물은 20년이 넘은 건물이라 방음이 전혀 안된다.) 그저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도시에서의 저녁시간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

콩나물 시루와 같은 지옥철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하지만 시골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여유가 생겨났다. 퇴근 후 집에 오는 시간은 노래 한곡 들으면 도착할 정도로 가깝고, 밥먹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이것저것 해도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저녁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니 이것이 시골살이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다.

처음엔 저녁마다 탐진강변을 산책했다. 벚꽃이 필 때면 꽃을 보



려고 막히는 도로를 몇시간 운전해서 잠깐 사진만 찍고 다시 돌아갔던 옛날이 생각나 우리 부부는 마주보며 웃곤 했다. 차츰 주변분들 알게 되니 복지관

이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생활모임을 소개해 주었다.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저렴하고 때론 강습비도 없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았다. 그런데 정작 이곳 분들은 지역 프로그램들의 고마움을 잘 모르느거 같다. 늘 곁에 있고 항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인가 보다. 도시에서는 프로그램 하나 배우려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난 요일 별로 장구, 난타, 줌바댄스, 차모임에 가입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배우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다.

장흥에 오면 항상 들르는 곳이 편백숲 우드랜드였다.

수령이 50년 넘는 빼곡히 솟은 편백나무들의 자태를 보고 훌쩍

반해 처음엔 우리 부부만 찾던 곳이 다음해엔 친정식구들과 여름 휴가를, 그 다음해엔 시댁식구들과 다시 찾았다. 지금에서야 우드랜드의 모든 길이 한눈에 보이지만 탐방객으로 왔을적엔 탐방로가 많아 어디로 다녀왔는지도 잘 몰랐지만, 숲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에 반해 남편에게 “나 여기 장흥으로 오면 우드랜드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청소라도 괜찮아요”라고 했다.

나의 꿈은 현실로 이어졌다.

장흥으로 내려오는 첫 해에 우드랜드에서 근무하시는 유아숲 지도사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어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치원 근무 경력이 있는 나는 곧바로 지원을 했고 면접 후



근무를 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던 곳에서 근무를 하니 일하는게 즐거웠고, 숲을 찾아오는 아이들도 귀여운 토끼와 같았다. 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과 곤충들을 탐구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면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적셔지고

시간 가는줄 모르게 즐거운 나날이다. 이젠 길거리에서 “야! 다람쥐 선생님이다.”하고 아는 체 하는 아이들이 꽤 늘었다.

탐방객들이 말을 건네온다. “여기에서 근무하세요? 월급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돈을 내고 근무하셔야 겠어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니 얼마나 좋으세요?” 맞는 말이다. 공기 좋고 푸르른 숲에서의 생활은 감기를 일년내내 달고 살았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장흥에서 4번의 겨울이 지나갔지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

처음 내려왔을 땐 향수병에 걸려 힘든시기도 있었다.

친구들이 보고 싶고, 밤이면 화려한 네온싸인에 휘청거리 보기도 싶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들러 쇼핑도 하고 싶었다. 친구들이 단체톡 방에서 번개를 할 때면 나도 서울에 있었으면 모임에 참석 해서 재밌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럴때면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허전한 맘을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위안을 받았고 차츰 포기라는 걸 하게 되었다. 지금은 친구들의 급 번개에 내 마음이 소용돌이 치지 않는다.

평온한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대견스럽기까지 한다.

내 마음을 알고 이제는 친구들이 장흥으로 내려온다. 휴가철, 물 축제, 시도때도 없이 찾아와 장흥을 구경하고 장흥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친구들. 장흥을 방문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참 좋다. 장흥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줄 몰랐네. 볼 것도 많고 신나는 일들이 많을거 같아. 나도 나이 들어 장흥으로 귀촌할래” “그래 우리 나중에 모여살자”

우리 부부가 제2의 인생을 펼치는 장흥을 마음에 들어하고 귀촌하고 싶어하니 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장흥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그 멀리까지 간다며 말렸던 친구들이고 가족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

누구나 한번쯤은 시골생활을 생각한다.

장흥으로 귀촌한지 4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 부부에게 시골살이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온다. 어떻게 귀촌지를 물색했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것도 참 많다. 별

써 우리가 귀촌선배가 된 것인가?

각박한 도시생활을 접고 파란 하늘아래 고즈넉한 들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삶을 맡기고 싶은 꿈을 꾸며 산다. 그러나 막상 그 꿈을 실현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막연한 동경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려면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 인터넷이나 TV로 보는 시골살이는 그저 환상일 뿐이다. 어느 곳이나 사람 사는 곳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 진심을 다해 새로운 환경에 스며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도움 주신분들께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커다란 만족이 자리 잡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실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왔겠지만 시골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시골에 와서도 뽁뽁한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 계획을 이루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은 본인들의 문제이지만, 시간은 불가항력적으로 계속 흐른다. 보통 3년 정도 걸릴 일을 1년 계획으로 잡고 온다면 그 사람은 1

년 후 틀림없이 귀농귀촌에 실패했다고 자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연의 3년이란 시간을 지나면 자신의 계획과 수확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을 잡고 귀농귀촌을 생각할 때, 가급적 시간에 대한 계획을 여유롭게 가지고 온다면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낮선 환경에 적응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잡았다. 무슨 일이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벌려야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기가 쉽다는 생각에 남편나이 50, 내나이 48에 우리는 과감히 서울을 떠났다. 10년 이상은 충분히 어떤 일이든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함께. 그리고 지금은 지인들 모두 너무도 잘한 결정이라고 부러워한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곳에 적응해 가는 기간이긴 하지만, 이곳 장흥에서의 인생 2막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펼쳐 나갈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

최우수

도시남을 품은 장흥

- 송진우(관산읍)

◇장흥에 온 날: 2018년 1월 23

농촌 거주·체험조차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젊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 이야기

▽도립공원 '천관산'의 기암괴석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장흥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커피에 관심이 많아 카페 경영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다가 열심히 자금을 모아 프랜차이즈를 열었습니다. 제 카페에 취업한 아르바이트생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장흥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아내의 고향은 장흥입니다.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저와 장흥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답답한 빌딩숲에서 생활하다가 넓고 푸른 들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흥의 매력에 서서히 취하고 있었습니다.

장흥은 제게 자연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따뜻하게 교류하면서 안정감을 얻어야 하는데 저는 도시에 사는 동안 사람사이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가댁인 지정1구 이웃분들은 제게 인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정을 나눠 주시는 분들 덕분에 항상 따뜻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으며 그분들이 주신 정은 차가운 도시생활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장흥을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하게 되었나봅니다. 장인어른께 장흥에 대해 이것저것 여쭙보다 농업으로 자연스레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농업이야기를 처음 듣던 그 때가 생생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를 내겠다고 결심했을 때와 똑같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농업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지낸다면 어떨까? 팍팍한 도시 라이프를 버리고 장흥의 푸른 들판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생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장흥으로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처럼 자연 속에서 사는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 에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착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자란 자금을

걱정하면서 장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장흥은 저 같은 사람을 품기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귀농창업자금, 귀농인의 집, 농지은행 등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귀농교육을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농업과 축산업을 배웠고 장흥이 자랑거리가 많은 매력적인 지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흥의 대표 음식인 한우와 표고버섯, 키조개를 이용한 한우삼합도 먹고 정동진과 다른 매력으로 바다를 보여주는 정남진도 가보며 장흥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장흥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교육생들과 함께 장흥물축제를 진행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기도 했습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귀농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선진지 견학, 한마음 운동회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장흥을 제 고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장흥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친절하게 농촌 정착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신경을 써주셨

습니다. 도시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는 사뭇 달라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그 분들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흥군청 귀농귀촌 담당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제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상냥한 이웃분들, 친절한 공무원들 그리고 넓고 푸른 들판, 바다, 천관산 등 모든 것들이 제가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자연을 선택한 것, 그리고 장흥을 선택한 것과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해나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귀농하면서 마음은 행복했지만 몸이 적응할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저도 귀농한 뒤 3개월 동안은 병원을 자주 출입하면서 귀농치료를 했습니다. 그 해 겨울에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중대기로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산읍에서 장흥군기술센터로 이동하는 도중에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눈이 오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었는데 차가 미끄러진 것입니다. 저는 다리와 골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누워만 지내야 했습니다. 하필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난 시점에 이런 사고를 당해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귀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고 소식을 들은 귀농귀촌팀의 담당자께서 아내가 대리서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겨우 준비한 귀농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를 겪으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퇴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제가 품었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 꿈은 수도작 벼를 재배하고 한우축사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심이 서니 불편했던 몸도 움직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트랙터 타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마을에서 가장 큰 농기계가 서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웃분께 제 처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비록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젊은 열정 하나는 가지고 있고 이 열정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제 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분은 조건없이 열심히만 배워 달라는 말씀과 함께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데리고 일을 하시며 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할지, 앞으로 농업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전수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일들이 제 눈앞에서 기적처럼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의의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에 결혼을 하여 2016년에 첫째 아들이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2018년에 장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아픈 데 없이 장흥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흥군 관산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다니던 도시 어린이집에 비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연을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부로 느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자

연을 자유롭게 산책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인 천관산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행복합니다. 매년 여름휴가철이면 수원에 사는 가족과 친척들도 장흥으로 휴가 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제가 귀농한 이후 가족들도 귀농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꼭 이곳으로 내려와 같이 살겠다는 예비 귀농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진지하게 장흥 곳곳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면 그 날이 정말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흥은 아내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아이들이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장흥군에서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여 합격한 것입니다. 지금은 장흥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근무중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내려온 저희 가족을 장흥과 이웃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 중에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걱정하

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처가 근처에 정착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같은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착에 성공한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마음을 조금만 더 연다면 막연하게 들었던 걱정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도시에 살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웃과 경쟁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좁은 주차 공간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제 지정 주차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화부터 났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견인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삶은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장흥군 관산읍 전체가 하나의 생활공동체입니다. 마을 분들은 모두 서로를 알고 지내십니다. 이곳에 이분들과 같이 살고자 왔다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 스타일입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면 '왜 궁금해 하지? 모르는 사람에게 꼭 인사를 해야 하나?'와 같은 도시의 폐쇄적인 자세보다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의 스타일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지역 주민들은 새 식구를 맞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새 식구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저를 알렸고 장흥군 귀농귀촌회의 일원으로 선배 귀농인들과 원주민들의 화합이 열리는 날이면 지역을 마다않고 참석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작동법을 알려 드리며 좀 더 친근해지려고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니 지역 주민들께서도 타 지역에서 온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저처럼 주민들과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으니 운도 따라줬습니다. 전국 귀농청년들 대상으로 상대로 동양물산에서 소형트랙터를 기증한 일이 있었는데 장흥군 귀농귀촌회와 귀농귀촌 담당부서에서 제 사연을 응모하였고 마침 제가 당첨이 되어 동양트랙터까지 기증받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장흥은 자랑거리가 많은 고장입니다. 천관산, 탐진강, 천관사, 보림사, 장천재, 연곡서원 등 볼거리와 사연이 즐비한 곳이 장흥입

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드넓은 푸른 들판이 가장 좋습니다. 그곳에 빠져 처음 귀농을 결심했고 그곳에서 제 꿈이 익어 가고 있으며 그 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장흥은 제게 이미 많은 것을 주었지만 언제든 아낌없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귀농을 꿈꾸는 많은 분들도 여기 오시면 넉넉한 혜택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귀농, 귀촌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여기 장흥에서 저와 함께 장흥이 주는 혜택을 누리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우수

지상낙원 장흥

- 홍석우(부산면)

◇장흥에 온 날: 2017년 12월 26



암을 치유하며 살기로 결심한 귀촌 이야기

▽ 탐진강 수변공원과 어우러진 장흥읍 전경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생존경쟁의 일선에서 비껴나 의무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퇴폐적이고 삭막한 도시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면서 내 노년의 인생을 정리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7년 전 어느 날 가벼운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구청에서 지정해준 병원에 갔을 때 편도와 갑상선에서 악성종양이 발견되어 삼성병원 암센터에서 항암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다. 6개월 후 다시 재발하여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치료가 끝나 퇴원하던 마지막 날 담당의사 선생님의 앞으로의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가서 스트레스 받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2년여 동안 전국을 누비며 어렵게 찾아낸 땅이 이곳 장흥 땅이다.

사실, 내가 이곳에 와보기 전까지는 장흥이 어느 도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생소한 고장이다. 어느 날 밤 우연히 돌린 TV화면에 “장성”우드랜드 편백나무 숲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고 있었다.

편백나무는 소나무보다 10배나 더 많은 피톤치드를 생산해 내며 피톤치드는 호흡기 질환자와 아토피, 천식 환자에게 특별히 좋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내가 여름 휴가철이면 즐겨 찾았던 두타산 삼화시가 있는 강원도 동해시 무능계곡의 추억이 떠올랐다.

무능계곡 입구엔 두 채의 작은 모텔이 있는데 앞마당에 백년 이상 된 아름드리 소나무 백여 그루가 뻗뻗이 들어서 있다.

이 모텔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나면, 아니 노송 및 평상에서 바둑을 두거나 낮잠만 자고나도 몸이 날아갈 듯 거뜨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한번 가면 10여일씩 묵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단숨에 편백숲을 찾아 장성 우드랜드로 달려갔던 것이다.

무능계곡은 겨울이 너무 춥고 삭막해서 일찍 포기했다. 장성 우드랜드 숲은 태고의 숲의 전경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으며 상큼하고 신선한 공기가 나를 완전히 매혹시켰다.

일박하면서 장흥엔 더 많은 편백나무 숲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왕이면 장흥까지 보고난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장흥에 와서 우드랜드를 둘러보곤 너무 실망이 컸었다. 장흥 우드랜드에선 장성 우드랜드의 운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상업성에만 치중하여 펜션만 들어 차 있었다. 장성의 우드랜드 안엔 한 채의 펜션도 없는 것이 대조적이었다. 택시 기사에게 편백나무 숲을 찾아왔다 실망하고 돌아간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더니 시내버스를 타고 장흥댐을 돌아오는 편백나무와 소나무 숲으로 뒤덮인 유치 한대리 휴양림을 보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며 요금은 1,300원이라고 상세히 알려주었다. 빨강색과 백색의 몸체에 노란색과 파란색 띠를 두른 새로 제작된 25인승 셔틀버스를 타고 보니 승객은 나 외에 단 두 사람 뿐이었다. 장흥 시내버스는 양 옆면 전체가 밝은 무색의 유리창으로 제작되어 있고 승객의 눈높이 위에 50Cm의 유리창이 하나 더 덧붙여 있어서 중간쯤에 앉아 있는데도 양면과 전면 삼면의 경관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 특수제작 되어 있었다.

한시간 반동안 200여리가 넘는 장흥댐의 유치와 한대리 자연

휴양림을 시내버스로 한 바퀴 돌아보고 이곳이 그동안 내가 찾아 헤매던 이상향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출발한지 2, 3분 만에 시내를 벗어난 첫인상은 시원하게 확 트인 넓은 들이, 막혔던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을 주었고 구름과 하늘, 능선이 맞닿은 곳에서 나의 영혼은 무한한 미지의 세계로 황금 날개를 펴고 여행을 떠났었다.

2017년 7월 19일 30여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들과 함께 살던 강남구 논현동을 떠나 아는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는 전남 장흥군 부산면 섭곡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산골에 100평의 대지를 850만 원에 구입하여 7,5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장밋빛 새빨간 지붕에, 벽체는 흰색 벽돌과 자주색 벽돌을 섞어 쌓아 전면에 파란 플라스틱 유리채양을, 단 30평 남짓한 간결하고 소박한 새집을 짓고 보니 수천 평이 넘는 정원과 500여 평의 목전이 집 앞에 텃으로 생겨 본의 아니게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

이 목전을 개간하여 3년째 살아본 소감은 한마디로 “지상낙원”이다. 80여 성상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살면서 별난 우여곡절

을 다 겪어 가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한 늙은이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내리는 결론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첫마디가 젊어졌다는 인사를 받는다. 사실, 나의 흰머리는 검어졌고 하이에나 같이 듬성듬성 닳던 머리카락이 보기 싫지 않을 만큼 새로 돌아나 있다.

겨울이면 단골손님처럼 찾아오던 감기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다. 지병인 화병, 암, 천식, 아토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나았다. 여기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래서 “지상낙원”이라고 썼다.

1. 장흥군이 가진 매력

1. 공기가 청정하고 신선하다.

장흥의 공기 질은 타 지역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검은 매연을 내뿜는 높은 굴뚝은 어느 한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인구 밀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어 차량 매연도 아주 적다. 편백 나무, 소나무, 기타 나무들이 들어찬 밀림 속에서 내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다 서울에 가면 차량 매연과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바로 돌아오게 된다.

2. 맑은 물의 고장이다.

장흥댐은 장흥평야와 시내를 관통하는 탐진강의 발원지로 넓이는 193km²이고, 저수용량(80% 이상 찼을 시 기준)은 약 200억톤이며 하루 평균 시설용량 20만톤을 생산하여 목포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에 상수도물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홍수조절 역할도 한다.

댐으로 유입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선 소, 돼지, 닭, 오리 등 대량 가축사육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낚시나 수영은 물론 손, 발도 씻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쫓말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다는 경고문까지 게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공장 폐수 및 오폐수, 축산 폐수가 유입되지 않아 적조, 녹조현상이 전혀 생기지 않고 태풍이 몰아치고 큰 장마가 쳐도 쓰레기나 부유물이 한 점도 떠다니지 않는 원수 자체가 1급

수인 청정한 댐이다. 너무 신기해서 장흥 수자원 공사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여직원에게서 장흥군민의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이란 답을 들었다. 오래전 부산에서 페리호를 타고 대마도 여행을 갔을 때 부산 부두엔 신문지 조각이며 빈 소주병, 빈 깡통, 담배꽂초 등 부유물로 꽉 차있었는데 대마도 부두에선 한 점의 오물도 떠있지 않은 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었다. 어느새 우리나라의 정신문화가 예까지 왔는지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다.

3. 내가 처음 왔을 때 “어머님 품같은 장흥”이 장흥군의 외침이었는데 지금은 “맑은 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이 장흥군 표어이다. 이 두 슬로건 안에 장흥군이 지향하는 장흥군민의 성품과 인간미가 서려 있다. 어느 음식점이나 이발관, 사진관에 가 봐도 고사성어나 산수화 한 두 점 안 붙여 놓고 영업하는 곳이 거의 없다. 효, 경로사상, 선후배에 대한 예절을 중요시 하는 사회라서인지 텃세라는 게 전혀 없고 친절하고 성품이 유하여 인정미가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이다.

4. 먹거리가 풍부하다.

토양이 좋아서 그런지 집 앞에만 나가도 계절에 따라 제철 약초와 산나물이 지천이다. 우리 집 근처엔 묵전(원래는 밭이었는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땅)이 많다. 묵전에서 돌미나리나 쑥 같은 것은 낫으로 베어와 집에서 다듬는다. 고사리, 취나물, 돈나물, 머구, 두릅, 도라지, 더덕, 죽순을 서울로 보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다. 고추, 상추, 부추, 열무,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50평만 심어봐도 매일 따먹고도 남는다.

바다를 끼고 있어 낙지, 해삼 등 해산물도 장에 가면 싸고 풍부하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의식주는 걱정 없는 곳이다.

코로나도 장흥군에는 한명도 걸리지 않은 청정한 지역이다.

5. 이주 비용이 적게 든다. (땅값이 싸서)

논, 밭은 평당 5-8만원대이고, 산은 평당 1,000원부터 시작한다. 건축 면적은 땅 면적의 20%이지만 외벽을 쌓고 건축허가를 받고난 후엔 10여평 정도의 건물을 이어서 지어도 무난하다. 형질 변경은 신고제로 되어있어 논, 밭이나 대지는 거의 같은 값이다. 건축비

는 평당 3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요즘은 건축자재가 개발되어 3, 4개월이면 완성된다. 150mm 두께의 스티로폼을 넣은 판넬로 벽체를 싸후 벽돌로 외벽을 쌓은 다음 쇠를 만든 판넬기와의 지붕을 얹고 단열재로 지붕 밑을 잘 처리하면 보온과 냉방이 잘되어 연료비가 APT에 1/2 정도 밖에 안든다.

6.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고장이다.

부자 동네에 가서 살면 자신의 처지에 실망해서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반면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자신은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깊은 산속에서 수십년간 홀로 사는 자연인들은 한결같이 행복하다고 한다. 처음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다.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의 500대 기업의 CEO나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행복지수는 똑같다는 하바드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을 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자연 속에 살아보니 자연은 누구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다. 남을 의식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직접 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7. 기후가 좋아 장수하는 노인이 많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따뜻하여 노인들 건강에 좋다. 폭설이 내리지 않는 한 눈이 와도 도로 상에 눈이 쌓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도가 전라남도이고 전라도 중에서도 장흥군이 장수노인이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 제일 많은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다. 도시 중에선 서울 강남구였다.

8. 교통이 불편하고 대형종합병원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서울 가는데 버스로 꼬박 5시간이 소요된다. 군내버스도 우리집 근처엔 하루에 3번 온다.

아침 6시 30분, 점심 1시 30분, 저녁 5시 30분. 2.5km를 걸어 부산면 4거리까지 가야 1시간에 1번꼴로 버스가 온다.

II. 암을 극복한 생생한 이야기

삶과 죽음의 막다른 갈림길에 서본 자 만이 하나님, 천국과 지옥, 영혼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편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삼성병원 암센터 수술대 위에 온몸이 묶인 채 누워서 필연적으로 나의 생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미래의 삶, 저승에서의 삶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다. 생과 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절박한 운명 앞에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그 외의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내 삶 속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돈, 연인, 명예, 지식 등은 아무 쓸모가 없었고 오히려 질시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 멋대로 쾌락을 쫓아 게걸스럽게 살아온 나의 삶이 한없이 후회가 되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은 항암치료를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고 한없이 두려웠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다
다시 와서 심판을 받게 해 달라고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깊은 잠에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니 나의 모
든 질병이 저절로 낫게 되었고 덤으로 마음의 평강과 범사에 감
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준 진짜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III. 장흥에서의 일상

나의 하루는 5시 30분에 일어나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시작하
는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새벽예배(채널
235번)에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 내외가 다니는 본 교회는 8km나 멀리 떨어져 있고 차가 없
어 새벽기도는 화상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

6시 40분경 예배가 끝나면 나는 아침산책(4km 1시간 소요)을 하
며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두 살 밑인 집사람은 새벽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밖에 나가 산

다. 나는 농사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문외한이지만 아내는 전남 고흥 부농에서 태어나 농업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농사일엔 박사다. 500여평의 밭농사를 아내에게만 맡길 수 없어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가 힘들지 10여분만 지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진다. 힘은 쓰면 쓸수록 세진다.

모든 노동 가운데 가장 즐거운 노동은 땅을 일구는 육체 노동이다. 육체노동은 식욕을 도와주고 소화가 잘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자게하고 휴식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다. TV만 보고 휴식만 취하면 눕고 싶고 누우면 몸은 점점 더 늘어난다. 나중엔 일어서기도 힘들어진다. 억지로라도 늙은 몸은 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면 체력을 잃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생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다.

묵전 500평을 개간하고 나니 양팔에 알통이 생기고 말라붙었던 가슴에 근육이 생겼다. 팔굽혀 펴기를 50번 할 수 있다. 빨리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에 가서 육체미를 뽐내고 싶다.

12시까지 장흥군 노인복지회관에 가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

자동 식권 판매기가 12시 정각에 멈추기 때문이다. 식대는 2,000 원이고 전문 영양사가 메뉴를 짜고 흰 위생모자와 위생복을 착용한 조리사와 배식 담당 종업원이 뷔페식으로 서빙을 한다. 음식의 맛과 질도 일반 음식점보다 못하지 않다.

식사 후엔 커피숍에서 셀프로 100원짜리 커피도 즐길 수 있다. 나는 기원으로 가고 내치는 의료기구가 있는 곳으로 가 누워서 찜질과 여러 기구 마사지를 하고 때론 TV에서 미스터트롯을 즐기거나 잡담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서울에선 기원에 가도 거의 내기 바둑을 두기 때문에 상대를 구하기가 어려워 가게 되지 않는다. 이곳 노인회관 기원에선 100원짜리 커피 내기도 허용되지 않은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어 분위기가 그만이고 언제나 상대가 있다.

3시 50분 군내 셔틀 버스로 유치 휴양림을 돌아 섭곡에 도착한다. 승객은 장날을 제외하곤 항상 텅텅 빈다.

1시간 드라이브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몸이 날아갈 듯 기분이 짱이다.

요금 1,000원을 내고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경치 좋은 곳을 드라이브 하며 마음껏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고장이 어디에 또 있을까.

자연인과 같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노년에 살고 있다.

▽ 정남진 물과학관



우수

나 인자 장흥서 쭉~욱 살아볼라요

- 김장규(용산면)

◇장흥에 온 날: 2018년 7월 20

장흥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던 사람이
직장 때문에 장흥에 와서 1년여 기간을 지내다보니
장흥의 푸른 숲, 맑은 물,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서 인
생 2막을 건강 관리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더
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귀촌인의 소박한 삶을 적어
봅니다.

▽ 용산면 남포 '소등섬 일출'





나는 무안군 해제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 목포 제일중과 목포상고를 졸업하면서, 당시에는 들어가기 힘들다던 은행에 입사 하였다. 그 당시 시골에서는 대단한 경사였다.

힘들게 살아오셔서 절약이 몸에 배셨던, 그래서 자린고비로 소문났던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돼지 두 마리와 떡과 음식을 마련해서 면민을 대상으로 잔치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큰 돈이 드는 행사였을 것이다.

서울에는 은행 입사 시험 때 처음 가봤다. 첫 근무지는 서울 성북구 보문동 지점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군에 입대하기

전 까지 11개월여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일을 했다.

나는 6남매의 장남으로서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다시피하며 살았고, 아내는 집안의 가난을 종식 시키고자 안간 힘을 썼던 것 같다. 우리는 6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고, 1남 2녀를 두었으며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 있다. 특히 외국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직장일로 지난해 캐나다 토론토로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한동안 나는 장흥과는 별로 인연이 없었다. 36년 동안 근무한 은행에서 퇴직, 10여년 전에 일 때문에 광주로 내려와 광주에 오래 살면서도 장흥에 들러 본적이 별로 없었다. 기껏해야 여수나 순천에 가는 길에 점심때 부근을 지나는 경우 토요일시장에 두 세 차례 왔던 기억이 전부였다. 또 나는 평소에 산을 좋아해서 언제든 천관산에는 한번 가 보고 싶었는데, 좀처럼 그런 기회도 오지 않았다. 그러던 2018년 봄,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흥에서 팬션을 관리하실 분을 찾고 있는데 형님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장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팬션 일은 8개월간 하였다.

처음부터 장흥에 살려고 마음먹고 온 것이 아니라서, 일을 접고는 고향 근처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었다. 그때 마침 장흥에서 인연 맺게 된 분들의 강권으로 평화리의 빈집을 소개받았고, 1년동안 지내며 장흥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평화리는 읍과 인접해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했다. 특히 상선약수터, 억불 약수터, 억불산 등산로는 매일 가도 좋은 곳 들이다. 자전거로 천문과학관에도 오르곤 했다.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든지 자동차의 방해가 거의 받지 않으면서 진입하는 것이 가능했고, 임도나 탐진강변로 등으로 통하는 길도 좋았다.

읍에 다닐 때도 웬만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니 건강관리, 연료 절약, 환경보호 등 1석 3조를 얻는 느낌에 뿌듯했다.

평화리에서는 집에서 1시간 정도면 억불산 정상에 올라 멀리서 완도, 득량만, 장흥읍, 강진읍 등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었다. 1

주에 1~2번 정도는 등산을 했는데, 가끔씩은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서 하산길에 쓰레기를 담아 왔다. 또 밤에는 거의 밤새 켜져있기 일췌인, 인근의 천문과학관 주차장 화장실의 소등을 하러 다니기도 했다. 어느새 장흥군민이 되어 있었다. 또한, 함부로 배출해서 수거해가지 않아, 마을회관 앞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재분리 해서 배출하기도 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보시고 칭찬하셨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을 했지만 좀처럼 주민들의 분리 배출 행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평화리 집의 계약기간이 다가오자 그동안 장흥에 정이 들어, 좀 더 안정적으로 장흥에 살고 싶어졌다. 장흥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해 보자고 마음 먹었을 때,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현 거주지를 소개받았고 장기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긴 소풍을 마치리라고 결심을 할 만큼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집이라 일단 거주가 가능한 정도의 필요한 수리만 하였다.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 내려앉은 온돌을 보수하고 아궁이와 굴뚝도 새롭게 설치하였다. 기존에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물 좋은 장흥이라 하지만,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좀 거시기 해서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고, 지하수는 허드레 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귀촌을 염두에 두고 장흥에 온 것이 아닌데도 살다보니 너무 좋아서 장흥 사람이 되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면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하다. 멀리 천관산이 보이는 평화로운 녹색의 들판, 마음까지도 평화롭다. 귀촌 후 완전히 달라진 생활, 한 마디로 여유로움, 잔잔하게 젖어드는 만족감, 아마도 사람은 자연과 호흡하며 살아야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나보다. 거의 모든 조건이 다 맘에 드는데,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세상에 온돌방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빨감은 동네 여기저기서 베어낸 나무들만 가져다 때도 될 것 같다. 올 2월에 이사했는데 5월말 까지 손님들이 와서 머문 4~5일을 빼고는 계속해서 온돌에서만 잠을 잤다. 오랫동안 침대 생활을 해와서 평소에는 바닥에서 자는 것을 불편해 했었는데, 온돌에서 자다 보니 어느덧 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일을 좀 해서 몸이 뼈적

지근 할 때도 따뜻한 온돌에서 자고 나면 가뿐해 지곤 한다.

이곳으로의 이사를 결정한 것은 작년 말경이었다. 올 초부터 거의 매일 평일에는 2~3시간, 주말에는 5~6시간씩 들러 청소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였다. 이웃 분들도 우리가 거의 매일 열심히 청소하고 칠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사 일정에 맞추어 일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는데는 동네 어르신들의 조언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모든 과정이 순탄하였던 것만은 아니었다. 바로 상수도 인입공사 과정이었다. 공사 다음날 조그맣게 젖은 흔적이 보이더니 이틀정도 지나니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시공사에 연락해서 파보니 지하로 연결된 수채관로를 건드린 것이었고 바로 보완 조치도 되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그 과정에서 집에서 나가는 하수관이 막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를 전화위복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살다가 하수가 역류하는 일이 벌어졌더라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선 원인규명을 하느라 생 고생을 했을 터이니 말이다.

하수관 공사를 하려면 포장된 마을 도로를 절개해야하는 머리

아픈 상황이었다. 그런데 때 마침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민생을 챙기시던 정종순 군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시던 길에 우리의 귀촌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직접 찾아 주셨다. 전후 사정을 들으신 군수님께서 신속한 조치를 해주신 덕에 골치 아팠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 되었다. 귀농귀촌인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해결에 힘써주시는 군수님이 참으로 고맙다.

이곳에 와서도 몇 차례 동네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와 분리 배출하기도 하고, 마을 어귀에 베어져 있는 나무들을 정리하는 등, 묵묵히 주변 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려 하고 있다. 우리 마을은 수원 백씨들의 집성촌으로 전체 가구 중 3~4가구를 빼고는 모두가 백씨 문중 분들이시라고 들었다. 주민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이신데도, 한 두분 빼고는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것 같다. 다들 부지런하시고 점잖으시며, 친절하셔서 마을의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참 편하다. 인사를 드리면서 떡을 돌렸었는데, 많은 덕담과 반겨주심에 기분이 좋았다.

작년에 평화리에 살 때는, 오전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복지관의 자서전 쓰기 (전라남도 공모사업)프로그램에도 아내와 함께 참여하였다. 그 결과물이 나와 지난 10월 에는 9명이 엮은 자서전“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몰라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노인복지관에서 정종순 군수님, 위 등 군의회의장님,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군민, 지인들의 축하도 받았다.

나는 장흥에 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참 잘 한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이 시행되자, 아내는 장흥남 초등학교 돌봄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아내가 오전에 방문 요양하던 어르신을 내가 대신 케어 해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르신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해심이 많고 속이 깊은 어르신께 참으로 감사드린다. 남자의 손이 필요한 집 수리 등 필요에 맞춰 드리니, 처음엔 다소 불편한 기색이셨던 어르신도 좋아하셨다.

우린 마음가짐이라도, 부모님께 못 다한 효도를 할 기회라 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며칠전에는 수원에 사는 어르신 의 아드님이 내려왔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잘한다는 말씀을 늘 하신다고, 고맙다며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셨다.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여 아내가 다시 어르신을 보살피니, 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다. 아내는 장흥남초 원어민 영어 보조,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교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용산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던 영어재능기부는 사정상 잠시 중단한 상태다. 아내는 시골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고마워한다. 도시엔 이런 나이에 교사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다. 아내의 어릴적 꿈이 교사였는데, 방과후 교사이긴 해도 선생님이 되었으니 꿈이 이루어 졌 다며 좋아한다. 20여년 넘게 영어를 놓지않고 노력하더니, 적잖은 나이에도 일을 갖게 된 것이다. 홍콩에 3년 살 때도 아들 다니는 학교의 교장 부인 (캐나다 사람)을 사귀어, 과외도 받고, 거의 주말마다 트래킹도 함께 다니고, 영국 문화원에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요즘 학교에 나가면서 더욱 활기가 넘

친다. 손주 볼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나 귀엽고 예쁘단다. 영어 인재들을 발견하여 키워보고 싶고 전국 영어대회에도 내보내고 싶다며 나름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아내가 학교에서 느낀 것들을 얘길 하는데 공감하는게 많다. 군내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그 애들을 몹시 짠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을지도 모를 체육이나 예술 방면의 소질이나 재능을 키워주거나,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능력을 키워 주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며 열변을 토한다. 정상아 들로부터 무시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숨 쉬고 나름의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한다. 교육청 등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문제이긴 한 것 같다.

대안학교 비슷한 어떤 장소, 폐교 등을 활용하여, 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공부 대신, 맘껏 공차고 노래하고, 만들고, 그림 그리거나 요리 등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할 수 있게 이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싶다. 평범한

아이들 보단 부족하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 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나 재능 기부 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는 유치원생 가르치는데 뭘 준비할게 그리도 많은지, 집을 온통 통차지하고 영어 교구나 자료들을 만드느라 발 디딜 틈이 없이 늘어 놓기 일쑤다. 코팅기, 절지기, 펠트, 색종이 등등 집안은 언제나 난장판이다.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니 망정이지, 끼니 때가 되도 밥도 차리려 하지 않는다. 내가 차려놓고 부를 때 얼른 와서 먹기라도 해주면 좋겠다. 학교에 다니면서 더더욱 그리 되어 간다. 아직도 철 없어 보일 때가 있는 낙천적인 아내가 그래도 사랑스럽다. 한평생 삼남매 키워내고, 집안일 실컷 했을 아내에게 이 정도는 배려 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다. 서로 부족한 부분 감싸주며 건강하게만 살아 줘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 난 아내가 부러울 때가 많다. 언젠가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냐, 여자로 태어나고 싶냐? 묻기에 즉흥적으로 한 마디 했다. 내 대답을 들은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박장대소를 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 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

더니, 그게 그리도 우스웠나 보다.

우린 주말에는 가급적 자전거를 타면서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자연 경관을 즐긴다. 보성, 벌교, 영암, 강진등지와 가깝고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 장흥은 물론 조금만 나가도 자전거 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가성비 좋은 맛집들도 찾아다닌다. 취미가 같아서 참 다행이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멀리 떠나셨고, 아들과 두 딸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각종 봉사나 재능 기부 등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보람되게 지내고 싶다. 특히 동네 분들과 서로 도우면서 친하게 지내고 동네 일에도 솔선 수범하려한다. 우리부부의 이야기는 2020년 4월1일자 장흥투데이에 “장흥으로 귀촌, 제2의 인생봉사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도 있다.

지인들이 안부를 물어오면, 장흥이 제법 복지나 문화적인 즐길 거리도 많고 살기가 편하면서도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다며, 여러 가지가 다 좋아 정착하기로 했다고 대답한다. 그들 중에 귀촌

하여 사는 모습을 직접 와서 보고 싶었던 부부가 있었다. 우리가 서울에 살 때, 근처에 부자 국수라는 식당을 자주 갔었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식도락가들이 찾아오는 집이었다. 서울을 떠나 광주로 내려오며 헤어졌는데, 그 집 국수맛이 그리울 때가 많았다. 특히 동치미 국수가 일품이었는데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

그 부부가 지난 5월초 우리집에서 2박 3일 머물다 갔다. 그들은 수년전부터 강원, 경기 지역 등을 돌며 귀촌할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다 한다. 그들은 우리 동네가 참 좋아 보인다고 하며 빈 집들을 둘러보았고, 부동산 소개소에서 얻은 정보로 군내 여기 저기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적당한 매물을 찾을 수는 없었다. 대신 다음날에는 정남진 타워를 경유, 강진의 다산 초당에 들러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는 남미륵사에 들러 철쭉을 구경하였다. 토요일시장에서 사 온 제철 생선인 갑오징어를 안주삼아, 늦게까지 그들이 손수 담가온 전통주를 마셨는데 참 맛 있었다. 평소에 술과는 담을 쌓고 사는 아내도 맛있다고 몇 잔을 마셨다. 아우의 우크렐레 연주에 맞춰 노래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큰 소리가 나도 띄엄띄엄 위치 한 이웃 집들에 민폐 끼칠 일이 없으니, 도시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 낙이다.

그들은 또 다시 5월말경에 강진쪽의 관심 부동산을 보러 내려왔다. 그러나 실물을 직접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은 안하기로 했다. 생각 끝에 이왕에 먼 길을 왔으니, 어떤 분이 집을 지으려고 샀다가 사정이 생겨 매물로 내놓은 땅이라도 한번 봐보겠느냐며 안양면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가서 보고는 마음에 든다며 당장 매도인과 만나게 해 달라했다. 참으로 희한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앞섰다. 그들은 바로 계약을 하고, 다음 날에는 잔금까지 완납했다. 초고속 특급 매매 완결판이었다.

그들은 귀촌하면 전통주를 빚으려고 계획 중이다. 지금 서울서 교육을 받는 중이고, 전통주 제조 허가도 받으려 추진 중이라 했다. 앞으로 귀농귀촌 교육도 받고, 필요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내려오겠다 한다. 아우는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남다른 슈퍼맨이라 꿈을 이룰 것 같다. 여태껏 맛보지 못했던 다양하고 고

급스런 전통주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공장과 집을 짓기 시작해서 5~6월경에는 귀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왕이면 국수집도 하면서 전통주 체험 카페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장흥에다 부자 국수집을 오픈했다는 소문이 나면, 아마 서울등지의 단골손님들이 국수가 그리워서라도 겸사겸사 여기에 놀러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장흥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 형제자매 들도 동반 귀촌을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 아내가 웃음치료사 자격증 반에 다닐 때 사귄 친구가, 아내의 귀촌 스토리를 듣고 자기도 우리 이웃에 살고 싶다며 집좀 알아봐 달라 했다 한다. 원래 시골을 좋아 하여 귀촌의 꿈을 꾸던 중이란다. 귀촌하면 함께 봉사 공연을 다니자는 그녀는 웃음 치료, 마술, 색소폰등 일인 다역의 무대 공연을 하고있는데, 노래만 못 한다고 아내더러 노래를 맡아달라 한단다. 이젠 어르신들 즐겁게 해 드리는 봉사로도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아내는 장흥에 오자마자 실버 가요제에 나가 대상을 탄 덕분에 이승길 회장

을 비롯한 좋은 분들도 만나게 된 셈이다. 그 중 회원 한 분이 평 화리 집도 소개해 주셨으니 군민들의 화합에 좋은 행사라 생각된다. 그 덕분에 이회장의 파랑새 봉사단에도 들어가 탐진강변 청소, 명절날 공원묘지주차 관리 등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언젠가 아내의 친구가 귀촌을 하면, 군내를 휘저으며 무대에서 방방 뛰는 아내의 매니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나는 극성맞은 아내 덕에 심심할 틈이 없다. 그 많던 내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렸다.

우리 집 앞마당은 차 두 대를 대고도 한참 널널하고, 뒤에는 200여 평의 밭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웃 분들이 경작해 왔는데, 지난 겨울에 심었던 마늘의 수확이 끝난 지금부터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부녀회장님께서 주신 참깨와 들깨, 돈부, 옥수수 등의 씨앗들과 내가 사 온 대두콩, 서리태, 팥 등을 파종하였다. 상추랑 파도 얻어다 심었다. 잘 자라서 이웃들과도 나누고, 가족 친지들과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은행 퇴직후 김포에서 6개월정도 경작을 해봤던 경험과, 시골 부모님 농사지

으시던 기억을 되살리고 또 동네 어르신들께 배우면서 터득해 가면 되지 않을까 한다. 직접 키운 먹거리로 상을 차리는 기쁨도 클 것이다. 게다가 나무를 때니 연료비도 아낄 수 있고, 도시처럼 각박하지 않아 널널하고, 맘도 편한데다가 절약이 제 2의 수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서 흐뭇하다. 좀 더 일찍 귀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장흥에 살게 되어 참으로 좋다. 참새미골 팬션 사장님, 소개해 준 아우, 계속 눌러앉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 그 모든 인연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느낀다.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장흥이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청정 지역임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푸른 숲 맑은 물 장흥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자족하는 삶을 실천하려



한다.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에도 힘을쓰고 싶다. 그리고 캠핑카도 한 대 마련하여 시

간 나는대로 전국을 유람하며, 사랑하는 친인척들과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호연지기하며 살고 싶다.

최근에 누가 장흥 떠나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는 나의 대답은 이랬다. “나 인자 장흥서 쭉~욱 살아 볼라요.



장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희망찬 장흥!

- 김경현(관산읍)

◇장흥에 온 날: 2019년 11월 14

|||||
청년이 장흥으로 오게 되면서 겪는 갈등을 통해서
성장 해나가는 이야기와 더불어 짝꿍을 만나 집을
장만하고 가족을 이루는 이야기

▽ 최고의 철쭉능선을 자랑하는 '제암산'



전역 후 생활고로 인해서 생활 전선에 빨리 뛰어 들게 되었다. 처음엔 프랜차이즈 세탁소부터 선박 안전요원 그리고 내려오기 전까지 감정원 사무 계약직을 했다. 이 중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했지만 말 그대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었을까? 출근 할 때마다 우울한 기분은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이를 풀기 위해 출근 전 등산을 가는 버릇이 생겼다.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정도 등산을 하고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면 몸은 조금 지치지만 머릿속은 상쾌했다.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출근길 발걸음마저 가벼웠다. 그때부터 나는 아파트나 빌딩 숲이 아니라 나무와 동물 등이 있는 숲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주말에는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지자체에서 하는 귀농 교육 및 합숙교육 등을 수료 후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다.

여러 지역을 알아보던 중 장흥에 지인이 있어 갔다가 넓게 펼쳐

진 눈과 나지막하게 둘러싸인 산들이 정겹게 느껴졌고 읍을 가로 지르며 수변이 아름다운 탐진강과 역불산의 우뚝 선 며느리 바위 그리고 남도의 명산인 관산의 천관산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장흥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에는 마을 내에서 있는 시간 보다는 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등산도 가고 싶고 강변도 걷고 싶고 장흥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느끼고 싶은 것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마을 분들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고는 있지만 마을의 주민은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들어가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기도 하고, 이사 왔을 때 돌리지 못한 떡도 돌리면서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마을 아집과 친하게 되어 일도 도와드리며, 아집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김치나 과일 등을 가져다주시며, 어머니 같이 잘해주는 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살던 습관 때문일까? 아집이 불쑥불쑥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없어도 집안

에 게시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아짐이 녀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마을에 문화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익숙하지는 않았다. 횃수가 많아지면서 불편함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하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직접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문 혹은 문을 잠그면서 앞에다가 외출이라는 표시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그 전까지 만해도 문을 따로 잠그거나 하지는 않았던 터라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이 들었다.

아짐이 처음에는 ‘왜 문을 잠가?’라고 말을 하시고는 그 뒤부터는 별말 없으셨다. 그리고는 오시는 횃수가 줄어들자 방법이 통해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고 난 후 부터는 오히려 내가 아짐 집을 찾는 횃수가 늘었고, 시간이 조금 흘러 내가 왜 문을 잠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 아짐은 말을 했으면 되는데 라고 하며, 미안한 기색으로 조금 어색했지만 그날 가지고 간 아짐이 좋아하는 옥수수 기정 떡으로 화해?

아닌 갈등 해소를 하며 훈훈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참고로
이제는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이라는 표시만 문 앞에 두는 것으
로 대신 했다.

마을에 왔을 때는 뚜렷한 일자리가 없었다. 간혹 읍에서 하는 아
르바이트 정도 이었다. 그러던 중 이장님 일을 몇 번 돕다가 다양
한 일을 소개 시켜주셨다. 표고목 따기와 종균 넣기, 폐표고목 옮
기기, 가축분 퇴비 뿌리기, 모판 나르기 등 농사일을 처음 하는 나
에게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기도 하고,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
식이나 신념 등을 이장님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었다.

더불어 마을 아짐들의 농사일도 있었는데, 고추 따기, 감자 캐기,
생강심기, 소 밥 주기, 고구마심기, 들깨 털기 등 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살아가는 기술과
계절마다 내가 심고 거두는 작물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마을에서 2년 가까이 바쁘게 생활하던 중 지역에 있는 모

임을 통해서 지금의 아내와 만났다. 아내는 강진으로 귀농한 터라 결혼 후 지역을 어디로 가야할지도 정해야 했다. 처음에는 강진에서 조금 있다가 장흥의 풍경과 아짐들의 정이 그리워 다시 장흥으로 왔는데, 그 전에 살았던 마을에는 빈 집은 있으나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관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실 장흥의 풍경이나 아짐들과의 추억 때문에 장흥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장흥에는 결혼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관산에 집을 장만했을 때 큰 도움이 되었다. 강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장흥과 그 액수가 배 이상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내는 전입을 장흥으로 최초로 해서 추가로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사를 하고 얼마 후 쌀이 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뭐지 라고 했는데 군수님의 편지와 함께 장흥에 전입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와서 조금 놀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집이 정리가 되고 주민등록증 주소도 바꿀 겸 관산읍 사무소를 갔는데, 직원 분께서 이사 오신 분이냐고 물으며 그렇다고 말하자 귀농하신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사업 등을 상담해 주셨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빈집 수리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 등 우리 신혼부부에게 맞는 사업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 중에서도 출산장려금과 영양 플러스 사업은 정말 좋은 정책 같았다. 신혼부부인 우리에게 아이를 가지려는데 힘을 보태어 주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산모나 아이를 위한 식재료와 돌봄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사실 우리도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 더 이르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흥이라는 곳이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경관이 좋아서 왔지만 생활을 할수록 아짐들의 정과 이장님의 배려 그리고 주변 이웃과 친구들의 격려와 더불어 장흥군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준 덕분에 혼자 와서 둘이 되고 이제는 셋을 바라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 정남진전망대(관산읍)



장려

살기 좋은 장흥!

- 양보람(장흥읍)

◇장흥에 온 날: 2019년 07월 15

|||||
장흥남자와 결혼 후에 소소한 이야기.



정남진전망대에서..

93일

나의 직업은 사진작가였다. 흑백사진 전문이며, 남이 볼 수 없는 곳을 찍는 사진작가, 병원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던 나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다.

“괜찮은 남자 있는데 만나볼래?”라는 물음에 생각을 하기도 전에 “넹” 답변해버렸다. 그 대답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날짜가 정해지고 정해짐과 동시에 난 탄수화물과 이별하였다. 원래 여자는 그런법이다. 남의 결혼식을 가더라도 일주일만 굶고 가는게 여자다.

하늘이 노래질 만큼 굵다 보니 일주일이 흘렀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찾아왔다. 커피숍의 문을 여는 순간. 그때도 늦지 않았다. 돌아갔어야 했었다. 하지만 마동석 같은 저 남자를 보는 순간. 돌아가다간 맞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난 2시간동안 세뇌를 당했다. 사업하는 사람다웠다. 나도 모르게 계약서에 이름을 쓰는 듯 흘렀다. 얼마나 흘렀으면 커피값도 내가 지불했다. 그의 말빨은 국 회로 보내기에도 충분했다.

“첨단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장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남자는 입에 이 말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항상 약속시간에 먼저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 말처럼 첨단 사는 남친이라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갔다. 현실적이고 낭비 없는 그의 성격에 자꾸 혼이 나가게 되었고, 뒤도 안보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다. 결혼준비 그거 보통 아니었다. 양가 상견례부터 웨딩포토까지, 한주 한주가 바빠 지나갔다.

93일째,

난 예식장에 주인공 신부가 되어있었다. 아직도 실감이 안나는

결혼생활, 이게 맞게 살고 있는 것인지 결혼을 두 번 해보지 않아
알순 없지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시골녘

처음 장흥에 올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학동에서 티켓을 사다.
좌석이 표시도 안된 묘한 차표를 받았다. 지나가는 금호 고속버
스를 타면 된다고 한다. 혹시나 기사님이 그냥 가실까? 손이 불나
게 흔들어 회진-장흥이라 쓰여진 버스를 타게 되었다. 그 남자 말
로는 터미널에 내리면 된다고 하였다. 장흥터미널에 도착 순간
장흥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푹푹 구경만 하고 있었다. 기사
님이 장흥이라고 알려주셨다. 난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동네가
무척이나 더웠다. “아 3층이상 건물이 드물구나 그래서 그들도
없는가 보네”

그리고 남편과 동네를 거닐게 되었다. 남편이 길치인 나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무조건 동쪽으로 가면 집이 나와 길을 잃어버
리더라도(저쪽에 후지산같이 생긴 산을 가르키며) 무조건 동쪽으
로 가면 된다하였다. 정말이지 신기했다. 지금도 혼자 다니다가

길을 모르겠으면 후지산을 보며 동쪽으로 걷다 보면 희안하게 집에 올 수 있다. 저녁에 남편과 함께 산책을 자주 나간다.

탐진강변을 걷고 주공쪽으로 코아루 쪽으로 해서 자주 걷는다. 작년에는 참 놀라웠다. 웅웅~~ 개구리 소리라고 한다. 난 전라도 개구리는 다 코아루 앞에 사는 줄 알았다. 지금은 정겨운 소리처럼 적응 되었다. 하루살이와 모기는 왜 그리도 많은 건지. “다음 주부터는 하루살이가 줄어들 거야 농약할 때 됐거든” 남편말은 귀신 같이 맞아 떨어졌다.

시골의 저녁은 언제나 한가 했다. 급할 것도 없었으며, 변화에 적응하기 좋은 곳이었다.

#지역사회?

남편은 사업가다. 모임도 겁나게 많이 다닌다. 같이 중앙로를 산책하다 보면 걷는 사람의 거짓말 좀 보테자면 절반은 남편의 선배, 절반은 후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좀 오바하자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밥먹다가 인사하고 인사받고, 남편이 고개 움직이는 미러링을 계속해야 된다. 동네에 무슨 회장님들이

그리 많은건지, 어르신들의 절반은 회장님인 것 같다. 아는 형님 가게 가서 밥을 먹고, 아는 사장님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아는집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아는 만큼 할인은 가능하며, 친할수록 현금으로 결제한다. 덜친하면 카드로 결제하는 우리남편, 나름의 원칙이라 하는데 나는 뭐 속인지 알수가 없다.

지역사회를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이 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편한 세상인 것 같다. 군청에 민원 넣는 것도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줘야 한다며. 아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민원 넣는다. 희안하게 일처리는 빠르게 된다. 택배를 남편이름만 써서 보내도 택배가 묘하게 우리집까지 오는 것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700만원의 늪

결혼을 준비 하던 시절, 남편은 결혼 후에 광주에 아파트 하나 사서 광주에서 장흥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며 나를 꼬드겼다. 32년을 광주에서 살아온 나에겐 당연, 광주에 사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썸이었다. 장흥에 남편이 결혼전에 집을 사놔서 주

말부부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중 안내서를 한 장 내미는게 아닌가? “장흥에서 살면 700만원 준다 같이 3년만 있어보자” 700만원에 눈이 뚱그려진 나를 유혹했다. 거기에 옵션으로 출산장려금 300이라는 팜플렛과 함께. 난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 이미 늦어버렸다 장흥에 살다보니, 슬로시티같은 곳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다. 마음도 몸도 장흥에 적응이 되어버렸다.

아파트 분양 전단지들을 보면, 지하철에서 5분거리, 터미널에서 5분거리, 1키로 안에 초중고 학교. 이른바 역세권이라고 무진장 광고를 한다. 평당 1500이 넘는 가격에 역세권. 장흥은 온 동네가 역세권이다. 그것이 장흥읍에 사는 나의 특권이다.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산후조리, 신혼부부 월세지원 등등 무진장 지원이 많이 나온다. 뭐든 광주보다 많이 주고 잘해준다. 그런거는 참 좋은 곳이다. 동네전체가 인구늘리는게 혈안이 되어 있다. 내가 처음 장흥에 왔을때도 주변사람들이 텃세 없이 잘 품어주셨다. 항상 고마운 시골의 정인 것 같다.

#슬로우시티

남편은 어릴때부터 성적이 반에서 3등이하로 떨어져 본적이 없는 수재라고 하였다. 어쩐지 말하는게 똑부러지고 괜찮다 했지만, 알고봤더니 초등학교는 분교였다고 한다. 세상에 한반이 3명이였다고, “라떼는 말이지”로 시작하는 동갑내기 남편의 과거사는 참으로 화려하다. 어릴적 3학년때부터 경운기를 몰고 다녔고, 소를 줄에 매달아서 강뚝에 매놨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수가 없다. 우리 시택은 부산면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8시만 되면 가로등 빼고 동네가 조용 조용한 시골녘이다. 시골분위기 보면 조금 남편말도 이해가 되는 편이다.

출산후에 슬슬 기회가 될 때마다 남편따라 운전하러 나간다. “장흥에서 운전할때는 애매하다 싶으면 가만히 있어”고추장인지 된장인지 말도 안되는 말로 나를 또 현혹 시키지만 운전하다 당황할때면 TV에서 나오는 김여사처럼 가만히 있다. 그럼 다른 운전자가 다들 알아서 비켜서 가신다. 지역사회의 운전법이라 다들 급하지가 않아 운전하기 편한 동네라고 생각된다. 온 동네 사람들이 급한것도 없고, 나긋나긋하며, 친절하다고 생각된다.

장흥외곽 바닷가 쪽에 집이나 한 채 만들어 우리 친정엄마, 아

빠를 노후에 모시고 싶을 정도로 여유 있는 곳인 것 같다.
땅값도 그리 비싸지도 않고, 시골빈집들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된다고 하니, 먼나라 이야기는 아닌 듯 하다.

마치며.

장흥의 특산물, 장흥물축제, 우드랜드등 관광상품등의 재정자
립도를 올리는 사항도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껴
질 만큼 동네가 활발하다.

장흥의 위치가 목포, 순천같은 곳에 붙어있는 곳이 아니라. 상
권이 활발하고 소비순환이 잘되는 지역 같아 보였다. “돈이 순환
이 되는 곳은 살만한 동네”라는 남편의 이야기처럼. 장흥은 마냥
시골로 퇴화되는 곳은 아닌 것 같다. 각종 복지정책과 한마음 한
뜻으로 인구늘리기에 힘쓰고 있어서 더욱 활기찬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전국생산량에 대부분이라는 키조개, 장흥표고버섯, 장흥한우
등 농축산 품목이 더욱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겠끔 지자체에서는
더욱 노력했으면 하며, 지역사회 일원인 장흥군민 한명 한명이

인구전도사로서 친절과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장흥군은 잘 사는 동네, 사람 사는 맛 나는 동네가 될 것 같다. 9개월짜리 딸아이와 함께 장흥인구를 2명이나 늘린 우리남편에게 상줘야 할 듯 싶다.

정착사례 수기 공모를 통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장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코로나19가 기승이지만 따뜻한 시골인심으로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흥댐(탐진호) 용문교 전경



장려

Being in This Place

장흥에서 사세요^^

- 서 병 학(장흥읍)

◇장흥에 온 날 : 2016년 8월 23일

장흥에 오게 된 배경과 주민들과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
탐진강과 우드랜드를 제가 경험했던 나라들과 비교 설명하고 정신적 healing up 할 수 있는 곳
향 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을 때장흥에서 삶을 마감 하겠다는 내용.

▽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전경



Come in this place !!(장흥에 오세요)

See in this place !!(장흥을 보세요)

Experience in this place !!(장흥에서 느끼세요)

Being in this place !!(장흥에서 사세요)

위에 언급된 네 마디가 내가 생각하는 답이다

2016년 8월 어느 날 나는 나이 먹고 가족과 떨어져 아는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는 낯선 땅 낯선 곳에 정착하기 위해 장흥읍 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를 한 지 5분쯤 지났는데 장흥군수님 명으로 발송된 “장흥군민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세상에, 전입신고했는데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다니! 아무튼 그 문자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다. 나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묘하기도 해서 가



족과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쌀도 제공받았다던데 福도 없어 ㅋㅋ)

나는 전입하기 1년 전에 LD 마트 입구에 있었던 수산물 코너에서 6개월 동안(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만났던 손님들과의 추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당시 마트 주변에 병원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병원 약 처방을 받거나 물리치료를 마친 할머니들이 마트에 오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산코너 단골이 되시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나의 작은 일과 중 하나였다.

할머니들은 영감하고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키우며 먹고 살려고 죽도록 일만 했던 사연들, 자식 며느리 손자 손녀 자랑도 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영감은 죽고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살아 밤마다 벽보고 얘기한다며 탄식의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몸이 아파 거동(學動) 못 하는 영감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말이나 걸어 볼 텐데 아쉬워하는 그분들을 위해 나는 생선회 뜨고 남은 뼈를 따로 모아 왔다가 사장님 모르게 드리곤 했다. 사장님이 왜 생선 뼈

파는 내용이 없냐고 의아해 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근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게 됐다. 장흥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나에게 정말 많은 심적 변화가 생긴 것을 본家(광주)에 와서 알게 되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장흥의 삶을 꿈꾸게 되었다.

나는 24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활을 하다가 2007년 명퇴를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고민하다 요리를 배웠다. 요리를 배워 두면 먼 훗날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 용돈을 주는 것보다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면서 사랑을 보여주면 핵 가족시대에 그나마 대화의 場이 열리지 않을까 해서 배웠고, 나이를 먹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배우게 되었다. 그 배움을 계기로 나는 요리사의 삶을 살게 됐다.

장흥읍 동교 2길 6(진송 호텔 맞은편)에서 2016년 10월부터 구루메 참치 초밥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구루메 뜻 : 일본 후쿠오카 현의 소도시 - 해외 첫 출장지, 프랑스어 : 美食家)

가게 오픈하는 과정에서 아내와의 재미난 Epsoide가 있어서 소개하겠다.

시골에서 초밥가게를 오픈한다는 계획을 세운 나는 아내에게 쉽게 나의 뜻을 내비칠 수 없었다. 가게 오픈은 아내의 지갑이 열려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참고로 내 아내의 지갑은 악어 지갑이다. 돈이 지갑에 들어가면 나을 줄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은근슬쩍 잔머리를 썼다. 아내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혹시 해외나 국내로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물었더니, 아내는 유럽의 스페인과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홍도와 흑산도, 친구가 살고 있는 경주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내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이 모든 소원을 한 달 이내에 이뤄 주겠다고 약속했다. 스페인에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될 때 3개월 정도 근무한 경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아테네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에 추억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정해진 날짜에 스페인 마드리드와 그리스로 여행을 갔다.

영화 ‘엘시드’ 촬영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문화가 조화를 이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전주 한옥마을 같은 느낌인 톨레도 지방과 그리스 아네테 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노래 가사 말이 있는 코린트 지역(사도 바울 초대교회) 여행하는 7박 8일 동안 나는 의도적으로 장흥에 가게를 오픈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귀국 후 예정대로 홍도와 흑산도를 여행하면서 홍도에서 소주를 마시며 말을 꺼냈다. 장흥에서 살아보니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순수하고 때문지 않아 좋더라, 또 나이드 먹고 했으니 일당으로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닌 Vagabonde(방랑자) 생활을 접고 장흥에다 조그만 가게를 열어 정착하고 싶은데 어찌 생각하냐 물었다. 아내의 대답은 한마디로 No~~~~. 나는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했다. 결국 내게 설득당한 아내는 경주까지 여행을 끝내고 필요한 금액을 준다고 했다. 나는 이틀 뒤에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해둔 상황이라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며 일단 계약하고 나서 경주에 가자고 약속했다.

드디어 정해진 금액이 아내의 악어 지갑에서 내게 입금이 되었다. 로또 맞은 기분이었다.

그 이후 경주는 갔냐고요?

미쳤어요? 돈이 입금되었는데....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계약하고 가게 인테리어, 허가 등 여러 가지 일을 핑계로 안 갔다. 약속을 안 지킨 내게 성이 났던지 아내는 가게 오픈할 때 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고 있다.

가게 개업할 즈음 엘디마트 수산물 코너 단골이셨던 할머니들은 떡도 해오시고, 쌀도 가져오시고, 고추 마른 것도 가져오시곤 하였다. 그중에 몇 분은 벌써 돌아가셨다 소식도 들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과 관련된 가슴 아픈 사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소개하겠다.

작년 초가을쯤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점심시간에 초밥을 사러 오셨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오셨다. 초밥 주문 내용도 언제나 똑같은 것이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서 한 번은 아주머니께 여쭙봤다. “아주머니! 장흥에서 못 뵈 분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오실 때 마다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자기는 서른네 살 먹은 아들이랑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살았는데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아들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전남대 화순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뇌종양 말기라고 앞으로 3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단다. 그런 아들을 위해 공기 좋은 곳을 찾다가 장흥을 알게 되어 집을 팔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단다. 다른 것은 못 먹는 아들이 초밥은 먹어서 날마다 초밥을 사러 오는데 그나마 이것이라도 먹으니 마음에 위안이 되지만 사가지고 간 초밥을 아들에게 건네줄 때마다 아들의 생명이 단축되어 가는 달력의 날짜를 바라보면 아들과 헤어져 갈 날이 또 하루가 지나간다 하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눈물지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초밥을 사 가는 날짜가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10일에 한번 꼴로 줄어들었다. 안부가 궁금한 어느 날 아주머니가 오셔서 ‘오늘이 이 초밥 사 가는 것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하셔서 나는 그만 망연자실했다. “장흥에 살아

본게 어짜요”수기를 쓰면서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른다. 그 뒤로 아주머니의 소식은 모른다.(아주머니 늘 건강하세요.)

장흥의 9경 중(7경은 가지 못했음)에서 내가 특히 좋아하는 곳은 우드랜드와 탐진강 주변이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나의 상상력 때문이다. 오해하기 말기를 바란다. 나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아침마다 탐진강 주변을 조깅한다. 조깅할 때마다 탐진강을 파리의 세느강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린다. 세느강처럼 유람선은 다니지 않지만 말이다. 파리에서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세느강 주변에 모래와 의자를 갖다 놓고 외부 관광객에게 의자 사용료와 입장료를 받으며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나는 탐진강 주변 공연장을 지나칠 때도 세느강 주변이라고 상상을 한다. 그리고 탐진강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세 개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곳은 두 번째 교각 밑이다. 이따금 저녁에 일을 마치면 소주를 한 병 들고 가서 마시며 물소리 바람소리를 느껴본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은 기분이 아주 업(up) 된다. 징검다리를 바라보면서 황순원의 소나기 소설속의 주인공이 되보기도 하고, 교각

위에서는 12-14세기 르네상스 발생지인 이탈리아 피렌체의 신곡 저자인 단테가 아홉 살 때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베끼오 다리를 연상하기도 한다. 그럴 때 탐진강은 베끼오 다리 밑을 흐르는 아르노 강이 돼곤 한다. 요즈음 조명공사를 한다고 조감도를 세워 놨던데 완공되면 날마다 찾고 싶은 아름다운 저녁강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우드랜드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영화 쥐라기 공원 촬영배경인 레드 우드 수목원과 거의 흡사한 것 같다. 그곳에 가면 다양한 Healing course가 있는데 우드랜드 관계자들이 꼭 시간을 내어 뉴질랜드 레드우드 수목원을 한번 견학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두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예순 살이 넘은 나이에 학연(學緣), 지연(地緣), 혈연(血緣)이 없는 낯선 땅 낯선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살기를 결정했기에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생각 않고

살려고 한다. 아이들도 다 컸고 그동안은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다. 나도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 않으니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의 의미는 상대적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절대적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삶의 가치(value of life)를 어디에 두느냐는 중요하다.

사람은 생자필망(生者必亡)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과욕필패(過必敗)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실패하니 소욕다시(小慾多施) -욕심을 버리고 많이 베풀어라- 하면서 삶을 마무리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구루메 식당을 운영하다가 점점 기력 없어질 즈음, 미국 민요 클레멘타인 노래 가사처럼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에서 아무도 모르는 개 한 마리’와 살고 싶고, 그러다가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 영원히 묻히고 싶다. 그런데 장흥 읍내 부동산 중개소에 땅값 문의를 하면 바다를 품고 있는 회진, 대덕, 수문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나의 행복을 위해 부동산 증개소 문을 계속 두드려보겠다. 운이 좋으면 값이 싼 땅이 내게 올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 천년고찰 가지산 '보림사'



장려

장흥이라서 행복한 3자녀 정착기

- 최 슬 기(장흥읍)

◇ 장흥에 온 날 : 2020년 01월 29

|||||

갑작스런 귀농결정으로
짧은준비기간 정착하게 되었지만
괜한 걱정이었다고 느낄 만큼
3자녀와 행복한 장흥살이를 하고 있다



장흥에서 낳은 셋째와 함께

도시생활 청산하고 막연히 내려온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골살이는 평균 2~3년 정도의 고민과 준비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저는 두달안에 결정을 해야 했고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앞섰으나 약간의 용기만 필요할 뿐막상 내려와 생활해 보니 느낀 점은 “참좋다”, “진즉올걸”

장흥살이를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아이들 전학, 남편 귀농교육, 셋째 출산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회한 적이 없을 만큼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 몇 자 적어 봅니다.

2019년 12월

순천에서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늦둥이 셋째가 생겨서 더 이상 가게를 영위할 수 없었고 가게를 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저녁 10시까지 일하다 보니 이렇게 바쁘게 씩씩이 힘들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도 들고 초등학교 2학년 큰애, 7살 유치원생인 둘째 한참 챙겨줘야 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를 결정하고 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이라 자기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학교친구들, 정든 집, 일자리 등등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본 후보지는 광주, 강진, 장흥 광주는 애들 아빠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이곳이 좋을 것 같다 생각했고, 강진과 장흥은 저희 부부의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이곳에 정착하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일자리와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 전세계약 만료가 2달 남짓 남아있던 시점이었고

이왕 아이들 학교를 전학시키려면 3월 새학기에 하는게 좋겠다 생각했고 셋째도 2달 후 출산예정이라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일단 이사 갈 곳 주변 환경을 둘러보기로 하고 광주 부동산에 들러 집을 보러 다니고 아이들 다닐 학교를 탐방하러 다녔지만 아이들이 반응이 시큰둥 하더군요. 저도 답답하고 복잡한 광주 생활을 생각하니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장흥을 둘러보기로 하고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할아버지가 “장흥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보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매물 사진이나 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어요.

군청홈페이지가 그렇게 잘 활성화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군청홈페이지 군민마당에서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도시민유치”라는 카테고리에서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도 얻어서 지금은 아이들 아빠가 귀농귀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장흥초, 서초, 남초 3곳이 있는데 3곳 다 학교 시설이 웬만한 대도시보다 잘되어 있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서초가 아이들도 좋아라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고 스쿨버스도 있고 소학교라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습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은 “장흥천변” 원래 살던 곳이 호수공원이 있어서 아이들과 매일 산책을 다니곤 했는데 장흥도 천변 너무 멋진 환경이더군요.

각종 운동시설도 있고 산책코스도 있고 돌다리만 건너면 장흥토요시장이 바로 있었습니다.

잠깐 둘러본 장흥엔 차막힘도 없고 도로정비도 잘되어 있고 영화관이랑 수영장, 천문관도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도시의 문화생활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읍 주변에 원광대 한방병원도 있고 차로 10분 이동하면 멋진 바닷가를 구경할 수 있어요

2020년 2월

드디어 장흥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장흥읍의 마당이 넓어 맘껏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한적한 주택이에요. 주소이전을 하러 읍사무소에 갔는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장려금, 보건소 출산혜택, 가까운 강진에 조리원이 있는데 그곳을 2주간 70%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영양플러스 등등 생각지도 못한 지원에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구나 느꼈습니다.

둘째는 건선이 심했는데 신기하게 지금은 피부가 말끔해졌어요. 매일 밤 불면증이 심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던 저는 몸과 마음이 편해서인지 잠도 잘 자고 아이들은 학교생활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고 남편도 귀농교육 열심히 받으며 미래준비를 하나가고

저도 산후 우울증도 없이 세 아이와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어 시골살이의 나의 삶이 크게 달라지거나 잘못되지 않았구나.

그 많은 곳 중 장흥이라는 나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장흥이라서 행복하다”입니다.

행복한 우리가족!



1

결혼 장려금 지원

◇ 문의처: 061-860-5601(장흥군청 총무과)

- ◎ **지원대상** : 49세이하 남,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법률혼 부부)
- ◎ **지원요건**
 - 혼인신고 이전 또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장흥군에 전입하여야 함.
(혼인신고 이후 전입하는 경우 지원불가)
 - 재혼인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 다문화가정인 경우 귀화이후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 시점의 연령을 적용하여 신청가능 (단 2017. 10. 31.이후 혼인신고 시)
- ◎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 이내 3회 분할지급
 - 부부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전입 시 1가구 200만원 추가 지급 (2019. 5. 7. 이후 혼인신고시)
 - 우드랜드 내 숙소등 시설 무료이용 지원 / 성수기 제외 / 1박2일 / 1회 한정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전입세대 지원

◇ 문의처: 061-860-5601(장흥군청 총무과)

- ▣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 지원대상 : 1가구 1명이상 전입세대중 1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지원내용 : 쌀 20kg지원 (세대당 1회)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 **공공시설 이용우대**
 - 지원대상 : 1가구 1명이상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지원내용 : 쌀20kg 지원 (세대당 1회)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 **전입자 장흥바로알기투어**
 - 지원대상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군 내 거주자
 - 지원내용 : 지역 주요관광지 투어 제반비용 지원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생생정보

3

신혼부부 주거지원

◇ 문의처: 061-860-5602(장흥군청 총무과)

◎ **지원대상**

- 최초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1년 이내부부
- 중위소득 150%이하가구 ※2018. 5. 7.이후 혼인신고 부부(개정조례 공포일:2019. 5. 7.)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부터 관내지속거주

▣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이하 관내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연 이자의 50%이내(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 3년간 지급)

▣ **임대주택(월세)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관내주택 월 임대료 50%이내 (연최대 120만원 /1년간 지급)

▣ **주택정비 지원**

- 지원내용 : 관내주택 정비비용 100만원 이내 지원 /1회 (도배, 청소 등)

4

출산장려금 지원

◇ 문의처: 061-860-6413(장흥군보건소)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단위 : 만원)

| 자녀별 | 장려금총액 | 신청후 30일 이내 | 첫돌 | 두돌 | 세돌 | 전남도양육비 |
|--------|-------|------------|-----|-----|-----|------------------------|
| 첫째, 둘째 | 300 | 200 | 100 | - | - | 신청후30일 이내 모든 출생아 |
| 셋째, 넷째 | 500 | 300 | 100 | 100 | - | |
| 다섯째이상 | 1,000 | 400 | 20 | 200 | 200 | |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문의처: 061-860-5881(장흥군청 주민복지과)

- ◎ 지원대상 : 관내만 0세~18세 자녀를 둔 가정
- ◎ 위 치 : 국민체육 여성향상센터 2층
- ◎ 운영시간 : 월~금 10:00-18:00
- ◎ 지원내용 : 안전한 아이돌봄을 위한 장소 제공,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동화구연, 영어학습, 수학연산 등 학습활동

6

출산 및 양육 지원

◇ 문의처: 061-860-6413(장흥군보건소)

- ◎ 탄생 축하용품 제공 : 오가닉 이불세트
- ◎ 임신축하용품 제공 : 튜살크림, 엽산제 또는 철분제, 고막제온계
- ◎ 임신무 용품 대여 : 유축기, 임신출산 관련도서, 아기법보의자
- ◎ 임신부산전검사비 지원 : 기본검사5종 (빈혈,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혈액형)1회
- ◎ 가임여성, 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 : 6만원상당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2주기준, 154만원중 70%지원
- ◎ 기 타 : 모자보건교실 (임산부요가, 영유아 오감발달)운영,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등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생생정보

7

귀농 귀촌 지원

◇ 문의처: 061-860-5951(장흥군 농산과)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갖자녀를 둔 농어업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 보유농어업인제외)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 (무상교육 대상제외자)

◎ 농어업인소득증대 융자사업

- 지원대상 : 관내1년이상 거주 농어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융자(연1%)개인1억원 이내/법인 5억원 이내
- ◇ 시설자금(2년거치 3년 균분상환)/운영자금 (2년 거치 1년상환)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 지원대상 : 전남도내 1년이상 거주하는 70세(변경)이하 농어업인
- 지원내용 : 융자(연1%)/개인1억원이내/법인2억원이내/학사농2억원이내
- ◇ 시설자금(2년거치3년균분상환)/운영자금(2년거치일시상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흥군 전입한지 만 3년이내 귀농어업인
- 지원내용 :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 귀농어업인 지원사업(보조)

- 지원대상 : 장흥군 전입한지 만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어업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 ◇ 창업자금 : 농업, 축산, 어업, 임업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구입지원
1,000만원 한도 지원(자담50%별도)
- ◇ 주택수리비 : 본인 명의 주택 및 5년이상 임대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시원
500만원 한도 지원(보조100%)

◎ 귀농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 지원대상 : 장흥군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연리2%, 5년거치 10년상환)
- ◇ 창업자금 : 농업축산, 어업창업에 필요한 기간시설설치구입지원/3억원한도
- ◇ 주택수리비 : 주택 신축 및 구입자금지원/7,500만원 한도

◎ 귀농인의 집 운영

- 주 소 : 장흥군 용산면 계산길 15
- 자격기준 : 장흥군에 귀농어. 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어, 귀촌인
- 입주기간 : 3~6개월 (1회 연장가능)
- 선정절차 : 공고모집 → 선정 → 계약 → 입주
- 임 대 료 : 보증금 20만원, 월세 6~14만원

◎ 귀농체험관 운영

- 주 소 : 장흥군 안양면 기산길 49-28
- 자격기준 : 도시민 중 귀농어 · 귀촌을 희망하여 농촌체험 및 정보수집을 하고자 하는자
- 입주기간 : 단기 (1박2일~2박3일)
- 선정절차 : 전화 예약제
- 임 대 료 : 1박 19,800원

8 귀농 귀촌 교육

◇ 문의처: 061-860-6522(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 지원대상 : 최근 5년 이내 관내전입한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 신청기한

▣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 지원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농인
- 지원내용 : 귀농기초, 식량작물, 과수, 특용작물, 농기계 등
- 신청기한 : 연중
- ※ 온라인(사이버)교육가능



2020년 장흥정착사례 수기

강릉에 살아볼게 어때요?

- ◇ 발행처 : 장흥군
- ◇ 발행인 : 정종순
- ◇ 편집인 : 인구정책팀
- ◇ 발행일 : 2020. 08. 00
- ◇ 인쇄처 : 호남인쇄기획